

함께 밝은 마음 지니고

최갑규 외 지음

미리내 / A5신 / 226면 / 3000원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온 저자의 네번째 수필집.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슬기롭게 생활하기를 기원하는 글들을 엮은 것으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선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잊지말 것, 감사함을 느낄 줄 알 것, 연구하고 성실한 태도로 능력을 갖출 것, 언제나 바른 마음을 갖고 실천에 옮길 것 등 저자의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솔직하게 썼다.

또한 어른을 위한 수필과 저자가 직접 쓴 다섯편의 동화도 실렸다.

빨난 아이

이준연 지음

새소년 / A5신 / 280면 / 2500원

도시생활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에 대한 사랑을 주르 한 단편동화들을 묶은 책. 어린이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현상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꽃이나 동물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이중 「꽃마을 할아버지」는 봄이 오면 아파트마을에 꽃씨와 꽃모종을 가지고 왔던 만석이 할아버지 이야기. 만석이 할아버지는 시골에 사시면서 봄에는 만석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꽃을 전해 주기 때문에 꽃마을 할아버지로 불린다. 그러던 어느날 만석이네 집이 이사를 가고 할아버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꽃마을 아이들은 궁금해 하는데…….

흙꼭두 장군

김병규 지음

서강출판사 / A5신 / 242면 / 2500원

어느날 농부인 빈수네 아버지는 밭을 갈다가 이상한 무덤을 발견한다. 이 무덤이 왕릉일 것이라고 추측한 이름난 사학자는 발굴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이천여년 동안 그 땅에 묻혀 있던 수레를 탄 흙꼭두장군은 빈수에게 나타난다. 흙꼭두장군은 신비한 재주를 가지고 빈수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도와주면서 친구가 되어 이 둘은 힘을 합쳐 무덤 속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한다. 흙꼭두장군은 처음 발견된 무덤은 왕비릉이고 그 옆에 왕릉이 있다는 것과 왕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는 빈수로부터 떠나간다는 줄거리.

컴퓨터는 내친구 (1·2)

교육동화연구회 지음

글수레 / A5신 / 각 240면 / 각 2500원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서 소개한 교육동화. 컴퓨터가 더욱 발달하게 되면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가상한 줄거리로 엮어진 단편소설을 묶었다. 현재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는 은행, 병원,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 학교, 공장, 가정, 사무실 등의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재미있게 읽으면서 컴퓨터의 역사로부터 컴퓨터의 원리, 구조, 작동방법, 그리고 컴퓨터가 갖추고 있는 갖가지 재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컴퓨터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컴퓨터에 관한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컴퓨터에 친밀감을 갖도록 꾸며졌다.



꽃바람을 타고 온 아이들

한국아동문학회 편

대웅출판사 / A5변형 / 166면 / 2500원

한국아동문학회 회원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동화집.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동화들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중 「아기바람과 눈」은 장난꾸러기인 아기바람이 겪은 아름다운 이야기. 아기바람이 한길이네 집 감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한길이가 날려보낸 종이 비행기에 맞아서 화가 난다. 그 앙갚음으로 한길이가 감기에 들도록 하는데, 알고 보니 한길이의 종이비행기는 눈을 내려달라고 하느님께 보내는 편지였다. 눈이 오는 날 한길이의 동생이 태어나기 때문. 아기바람은 사정을 알고 엄마바람한테 구름을 몰아 눈이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길이의 동생이 드디어 태어난다.

이러쿵 저러쿵 대행진

박상규 외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08면 / 2500원

요즘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관심사를 살펴본 책. 시험·용돈 · 반장선거 · 과소비 · 불량식품 · 생일선물 · 참다운 우정 등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떤지를 대화, 토론, 수필, 동화형식으로 아홉분의 아동작가가 재미있게 적고 있다.

첫번째 이야기인 '시험공포추방위원회'에서는 여수 경호국민학교에서 시험의 문제점을 가지고 청문회형식으로 벌인 토론을 다루고 있다. 어린이들이 평소 생각해 두었던 주제들을 가지고 벌이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비판정신이나 대화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엮여졌다.

소년소녀 이야기 세계사(상·하)

역사교육연구회 엮음

정출 / A5신 / 각 482·372면 / 각 4500, 4000원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쓴 세계사. 정치적인 주요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회, 문화, 예술 전반을 빠짐없이 다루었고 신화와 전설, 설화 등의 야사도 곁들여 있다. 세계사의 많은 사건과 인명 또는 연대를 단순히 읽고 기억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흐름을 익히고 역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많은 자료사진을 곁들여 설명했다.

상권에서는 고대 오리엔트로부터 중세말까지의 역사를, 하권에서는 근대가 시작되는 르네상스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현대까지의 역사를 다뤘다.

풍선보다 높이

홍보실 엮음

금성출판사 / A5신 / 336면 / 3000원

작년 한글날 KBS주최로 열렸던 제3회 전국소년소녀 글짓기대회에서 입선한 작품을 모아 엮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일들이 솔직하고 재치있게 표현돼 있다. 산문·운문 모두 206편이 실렸고 심사평과 입선자명단도 함께 실렸다.

우리집 사진첩 속에 있다 / 발가벗은 나 / 발가벗은 형 / 창피한 줄도 모르고 웃고만 있다.

형같은 나 / 나같은 형 / 첫돌 때 찍은 기념 사진

.....

형하고 함께 앉고 싶다 / 저 사진 속에 국민학교 대상「사진」중